

- 주요 뉴스: 미국 8월 소비자물가 결과에 주목, 금리인하 예상되는 ECB 통화정책회의도 관심
 -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, 노동시장 건전성 유지 위해 여러 차례의 금리인하 필요
 - 미국 연방예금보통금(FDIC), 은행권 2/4분기 이익 증가했으나 위험 요인 내재
 - 블룸버그 설문조사, ECB의 향후 1년 금리인하 폭은 1%p 내외에 이를 전망
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8월 고용지표 부진과 경기하강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, 중국 경제 우려 등으로 3.5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일부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 등을 반영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3%, 2.7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전망 강화 등으로 하락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3bp 하락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0.2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9/6일	8/30일	전주말대비			9/6일	8/30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5,408.4	5,648.4	-4.25%	국채 금리 10y	미국	3.71%	3.90%	-20bp
	유럽	506.56	525.05	-3.52%		독일	2.17%	2.30%	-13bp
	중국	2,765.8	2,842.2	-2.69%		영국	3.89%	4.02%	-13bp
	일본	36,391	38,648	-5.84%		한국	33bp	32bp	+1bp
	한국	2,544.3	2,674.3	-4.86%	CDS 5y	중국	61bp	57bp	+4bp
환율	달러지수	101.18	101.70	-0.51%	위험 지표	EMBI+	414	400	+14bp
	유로화	1.1084	1.1048	+0.33%		VIX	22.38	15.00	+49.20%
	엔화	142.30	146.17	+2.72%		WII유	67.67	73.55	-7.99%
	위안화	7.0980	7.0913	-0.09%	원자재	구리	401.5	414.5	-3.15%
	원화	1,339.9	1,337.5	-0.18%		금	2,497.4	2,503.4	-0.24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8월 소비자물가 결과에 주목. 금리인하 예상되는 ECB 통화정책회의도 관심

- 9/11일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발표될 예정.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CPI의 월간 및 연간 상승률이 0.2%, 2.6%로 전월(각각 0.2%, 2.9%) 대비 보합 및 하락을 기록하고, 근원 CPI는 각각 0.2%, 3.2%로 모두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. 세부항목 중 중고차 등은 하락하고, 주거비는 보합이 예상
- 이러한 전망이 정확하다면, 인플레이션이 근원 PCE 기준으로 연율 2%대를 기록하여 연준의 목표에 근접. 또한 최근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를 비롯하여 다수의 노동시장 지표들은 고용 냉각 신호를 발신. 이를 종합한다면 9월 FOMC에서의 금리인하는 확실시 되는 것으로 평가
- 다만 9월 금리인하 폭은 0.25%p가 될 것으로 예상. 8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다소 실망스러웠으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, 연준 파월 의장의 의중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도 0.50%p 인하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. CME의 Fed Watch도 0.25%p 인하 가능성을 70%로 제시
- 한편 9/12일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계획. 그 동안 다수의 ECB 정책위원이 경기둔화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, 이에 시장에서도 주요 정책금리의 0.25%p의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. 특히 최근의 임금상승률과 CPI의 하락세 지속 등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
- 또한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 둘 것으로 예상. ECB가 다시 한 번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, 확실시되는 연준의 9월 금리인하와 함께 주요 중앙은행들의 본격적인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, 노동시장 건전성 유지 위해 여러 차례의 금리인하 필요

-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및 노동시장 냉각 여건에서 통화긴축은 필요하지 않으며,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여러 차례의 금리인하가 정당화된다고 언급
- 한편 엘런 재무장관은 8월 고용보고서 결과와 관련하여 고용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

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, 은행권 2/4분기 이익 증가했으나 위험 요인 내재

- 은행권의 2/4분기 이익은 715억달러로 전년동기비 11.4% 증가했으나 상업용 부동산 부실,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은 여전히 존재. 한편 66개의 '문제 은행'이 존재하며 이들의 자산 규모는 830억달러라고 설명

■ 블룸버그 설문조사, ECB의 향후 1년 금리인하 폭은 1%p 내외에 이를 전망

- 애널리스트 대상 조사에 따르면, ECB는 이번 주 예정된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. 한편 현재 3.75%인 수신금리는 내년 9월에 2.5%까지 떨어져 매분기 0.25%p의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분석

■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,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비 하락. 곡물 부문이 부진

-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0.7을 기록하여 전월(121.0) 대비 하락. 품목별로는 곡물, 설탕, 육류 등이 하락한 반면 유제품과 식품성 기름의 경우는 상승. 특히 밀 가격은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하락. 한편 금년 곡물 생산량은 28.51억톤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

■ 전 중국 인민은행 총재, 지금은 디플레이션 압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

- 이강 전 총재는 당국이 디플레이션 종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, 물가하락이 성장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첨언. 특히 디플레이션 영향으로 소비자들은 지출을 연기하고, 기업들은 임금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

■ Goldman Sachs, OPEC+의 증산은 12월에 시작할 전망

- OPEC+의 증산은 10월이 아니라 12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. 한편 브렌트유 가격은 상당 기간 배럴당 70~85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며, 내년 말에는 74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존의 유가 전망 유지. 그러나 중국의 수요 감소, 리비아의 원유 생산 정상화 등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9/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도매재고 및 소비자신용잔액, 유로존 9월 Sentix 투자자신뢰
- 중국 8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, 일본 2/4분기 GDP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8월 고용보고서, 연준의 경기침체 대응 관련 투자자의 실망을 초래 - WSJ

(Jobs Slowdown Frustrates Investors Who Wanted Certainty on the Fed)

- 8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14.2만명으로 예상치(16.5만명) 하회했으나, CME의 FedWatch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9월 0.50%p 금리인하 가능성을 40%에서 23%로 하향 조정.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최근 지속적인 일자리 지표 악화 등으로 실제 결과가 시장 예상치보다 더욱 부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
- 특히 10월에 FOMC 회의가 없음을 감안할 때, 11월 FOMC까지 고용이 최근 추세를 이어 2개월 연속 부진하다면, 9월 0.25%p 금리인하로는 연준의 경기침체 대응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투자자 우려 점증. 이에 큰 폭 금리인하 기대 감소가 이어지며 증시 등에서는 변동성 확대가 발생

■ 미국의 수익률곡선 정상화, 상이한 경제 전망 의견은 지속 - Financial Times

(Shift in US bond yields leaves investors guessing about economic outlook)

- 8월 ADP 민간고용 발표 이후, 2년물 국채수익률이 10년물 국채수익률 아래로 하락. 이에 지난 2년간 지속되었던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이 정상화.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경제 개선 신호일 수 있고, 새로운 경고 신호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단순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(Capital Economics)
-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경기침체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, 과거 4회의 경기침체 역시 수익률곡선이 다시 정상화된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(Deutsche Bank). 이에 투자자들의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

■ 미국의 가계 재정, 팬데믹 이후 소득증가 및 자산가격 상승에도 금융 부담 가중 - WSJ

(The State of America's Walle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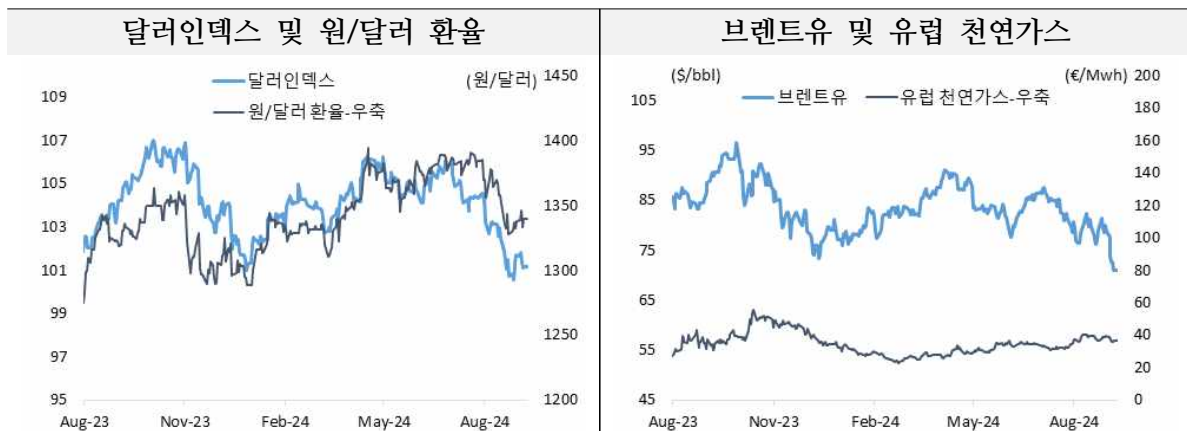
- 최근의 미국 가계 재정은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급등 전 시기인 '19년도와 비교할 경우,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 또한 증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더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는 상황
- 이는 신용카드 부채 증가 등이 영향. 특히 소득 대비 신용카드 부채 비율은 5년 전과 비슷하지만 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부담이 가중. 또한 자동차 구매 및 유지 비용, 임대료 및 주택 보유 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적 압박도 증가. 다만 연준의 금리인하 예상 및 이에 따른 모기지금리 인하 가능성은 긍정적 요인

- **세계화 추세, 미중 무역갈등에도 유연한 대응 및 정책 조정 등으로 지속 - Financial Times**
(Can globalisation survive the US-China rift?)
 -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5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무역은 도전에 직면. 특히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위기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각국에서 부상. 그러나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세계무역은 회복력을 입증
 - 다수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전환, 주요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무역에서의 위축은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. 이는 다국적 기업의 유연한 대응과 각국 정부의 실용주의를 감안한 무역정책 등에 기인
- **9월 초 신흥국의 채권발행 증가, 글로벌 금융시장의 잠재적 변동성 확대 대비 - 블룸버그**
(September's Big Borrowing Spree Underscores Emerging Market Fear)
- **미국 청년층 및 실업자의 취업난 심화, 연준의 큰 폭 금리인하를 요구 - 블룸버그**
(Big Fed Rate Cuts Are Needed for the Young and the Jobless)
- **국제 유가, OPEC 증산 계획·미국 휘발유 수요 정점 통과 등으로 하락 예상 - 블룸버그**
(Your Gas Tank Is Full. That's a Problem for OPEC+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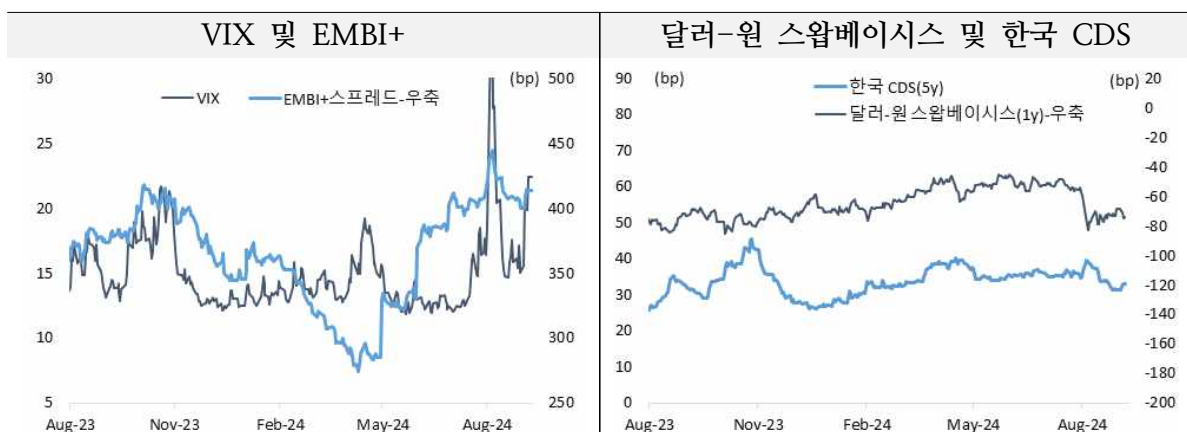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